

한국지엠 사태, 노정교섭으로 해결하자

군산공장 폐쇄 철회 금속노조 결의대회, 청와대 행진... “경영실사 노조 참여, 노정교섭으로 총고용 보장”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는 2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 구조조정 저지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명확한 책임 규명과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차거운 겨울비 속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노조가 참여



하는 GM 경영실태 조사, 사태 해결을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날 오전 부평공장에서 열린 노조 한국지엠지부 임금과 단체협상 3차 본교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지엠은 2월 26일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 명에게 문자로 ‘해고 통지’를 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월 2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등 이미 노동자 일방 고통 전기에 나섰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지엠 경영실태 실시는 정부와 지엠 간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면 안 된다. 노조가 참여하는 원칙적인 실사를 통해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노조의 요구를 오늘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사에 나선 입한택 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영진은 한 명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며 분노했다.

입한택 지부장은 “어쨌든 짜 맞추기 실사를 통

한 지원은 안 된다. 노조와 회사, 정부가 함께 모여 대책을 세우자”라며 회사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홍 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장은 “지엠지본은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에게 죽음이라는 공장폐쇄와 희망퇴직서를 보냈다. 군산공장 생산율이 낮아진 원인이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한 노동자들의 잘못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완규 부지회장은 “군산공장 비정규직 1,000여 명을 해고하더니 결국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정규직이 해고될 것이다. 이번 투쟁은 한국지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함께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거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제통합제조산업별노련 건부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게오르그 루테르트 자동차국장은 “지엠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전세계 자동차 노동자들이 연

대해서 지엠의 책임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연대를 약속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에 도착한 한국지엠 조합원들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외투지분 규제하라”, “경영실사 노조 참여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입한택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청와대에 노정교섭과 노조 실사참여 보장 등 요구안을 전달했다.

을 전달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2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한국지엠과 관계기관 면담을 통해 지엠지본에게 자의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들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노동자 생존의 문제를 지본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된다”라며 경영실태 조사에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다.

정부는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실태조사 전 정부와 한국지엠이 합의를 추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이런 이유로 경영실사 과정에 노조가 참여해 실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한국지엠의 적자 폭이 커지자 산업은행은 경영진단 컨설팅을 제안했다. 지엠은 이를 거부했다. 2017년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게 116건의 회계·재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겨우 62건만 제출하는 등 한국지엠은 부실경영 원인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분노를 음식삼아 하루하루 태우겠다”

쌍용자동차지부, 130명 전원 복직 요구 문화제 열어...김득중 쌍용차지부장 네 번째 단식 돌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2월 28일 해고자 130명 복직을 촉구하며 네 번째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사측의 약속한 줄 믿고 복직을 바라는 동지들 눈을 쳐다보기도 설득할 수도 없다”라며 “내장을 비우고 분노를 음식 삼아 하루하루를 태우겠다. 해고자 전원 복직이 이뤄질 수 있다면 치열하게 굶으며 마르고 또 마르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2월 28일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2.28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희망 행동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를 열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50여 명과 노조 조합원 시민사회 연대단체들은 15시부터 솟대 세우기와 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19시 문화제를 벌였다. 문화제는 4.16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문화제 대회에서 “10년 내내 투쟁해도 공장에 복귀 못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도 노동자의 삶은 변화가 없다”라며 “쌍용차 조합원들이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원인은 쌍용차가 노사 협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사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노조를 박살 내도 자본을 감싸는 정권이 문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면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라”라며 “금속노조는 약속대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전원 공장에 돌아가도록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방문 중인 다리어스 시빈 전미자동차

노조(UAW)국제 대표가 무대에 올라 전미자동차노조가 쌍용차 투쟁에 연대한 이력을 얘기하며 관심 두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리어스 국제 대표는 “UAW는 쌍용차 투쟁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국가폭력을 철저히 조사 하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하겠다”라며 “인권을 침해당한 노동자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고 해고자 전원 복직, 손해배상 철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67명 중 37명이 공장에 돌아갔다. 쌍용차는 130명의 복귀 일정을 명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쌍용차지부는 인도 원정 투쟁 등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한 전방위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부장 단식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문화제를 마무리하며 쌍용차 공장 정문까지 LED 희망 풍선을 들고 행진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쌍용차 공장 벽에 전원복직을 뜻하는 ‘모두’라는 글자를 빛으로 새기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금호타이어지회, 해외매각 반대 고공농성 돌입

조삼수-정송강 지회장 20미터 CCTV 관제탑 올라...산업은행, 약속 깨고 중국에 재매각 추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노동자 두 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조삼수 금호타이어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금호타이어 곡성지회장이 3월 2일 새벽 4시 55분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CCTV 관제탑 위에 올랐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노조와의 약속을 어기고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매각 전면 철화를

요구하고 있다.

두 지회장은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의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국내 건설한 기업에 지역경제 발전과 구성원 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밀실에서 중국 자본인 더블스타에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매각이다”라고 비판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두 지회장의 고공농성 돌입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더블스타 해외매각 추진 즉각 중지 ▲금호타이어 노동자 체불임금 즉각 지급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위한 미래비전 제시를 내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